

말씀의 절대망대를 편집 설계 디자인한 에스라 -복음으로 여는 에스라-

에스라 7:10-13, 고린도후서 5:17

정윤돈 목사님

* **스7:10-13**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다 여호와와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이다
* **고후5:17**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예배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로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라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에스라는 구약성경 전체를 정리한 위대한 성경학자였다. 에스라는 구약을 다 쓴 건 아니지만 중요한 말씀을 정리하고 전달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했다. 지금 신학자들이 말씀은 잘 정리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 에스라는 진도자였다. 그가 에스라서를 보거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의 실력을 알아보고 에스라를 다 도와주더라. 그러다가 가끔 연락하는 동기 친구가 일본을 들려야 하는데 소개시켜 줄 현장이 없냐고 물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시켜줬다. 이 동기 친구가 실력이 있는 친구다.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와서 영어성경 번역하는 내용을 물어보시기도 했다. 이 친구가 영어를 아주 잘해서 책도 번역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옥스퍼드에서 박사까지 공부하고 옥스퍼드대학 앞에서 옥스퍼드교회를 한다. 우리 서울대학교보다 몇십 배 유명한 대학이다. 그가 실력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실력이 있고 준비된 친구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일본 선교사님께 이분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중요한 통로로 만들자고 소통을 드리려고 한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할 계획이다. 저는 에스라에 대해 에스라와 같은 램네틱가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제 친구를 통해 응답하셨다. 단지 복음이 조금 약하다. 그러니까 명문대학교 나와서도 목회를 겨우 한다. 너무 아깝다. 복음을 쥐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하도록 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저도 설교준비만 하는 게 아니다. 말씀이 제게 성취되어야 한다. 제가 실천할 말씀, 절대망대와 절대 목표를 두고 기도한다.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노트만 은혜 받는다. 우리는 인생에 다른 절대목표와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는 목표를 주셨다. 그 목표만 의미 있고 진짜다. 인생이 힘들고 재미없지만 그걸 뛰어넘으려면 선교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해 봐야 한다. 여러분이 직접 구원의 길을 정리해서 증거할 현장이 많다. 필리핀에 지교회 20개 세워놓은 친구도 있고 태국에, 파키스탄에, 영국까지 복음화시켜야 한다.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간증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내용들을 말해야 한다. 학자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 에스라 선지자 이전에 성전을 완성했지만 건물만 완성했지 내용이 없었다.

성전을 완성한 유대인들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사역을 통하여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래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운동, 복음 운동이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오늘 말씀드릴 에스라서는 총 10장으로 되어있다. 그중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자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계속 때리신다. 하나님께 많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이다. 전쟁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뭐가 어렵다고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전혀 다르다. 지금 어려움이 하나도 어려움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으니가 하나님은 포로생활하게 하셨다. 저도 '고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 거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축복의 음성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래' 하지 마시기 바란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어렵다고 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어려움이 제일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아니다.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건 그렇다. 여러분은 거기서 속지 않고 매몰되지 않기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발견한다면 요셉처럼 많은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기 위해 주시는 문제다. 하나님이 제게도 문제를 골라서 주시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항상 큰 문을 여셨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역사를 믿는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원하시지 실력이나 능력을 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계획이 보이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할 것, 집중할 것, 도전할 것, 당연히 감당할 역할들을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잘 하셔야. 포기하지 마시라.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다. 교회와 가정에서 주어진 작은 일에 기쁨과 감사로 해보라.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주신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운동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구약성경 전체를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구약성경 전체를 정리하였고 이 말씀운동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킨 말씀운동의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통로를 박살내고 내 안의 흑암의 망대,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나라와 민족에 역사하는 흑암을 박살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실 계획과 축복은 엄청 많다. 단지 흑암을 말씀으로 꺾은 경험이 없을 뿐이다. 램네틱는 반드시 직접 성경을 읽어야 한다. 저는 설교로 은혜 받은 적이 없다. 성경을 통해 은혜 받아야 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한다.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먼저 성경말씀으로 은혜를 먼저 받고 설교를 통해 확인받는 것이다. 안 그런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다가 상처받고 때려 치는 수준 낮은 사람이다. 이해는 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저는 어릴 때 아무 이유 없이 가서 고아와 장애인 똥오줌 닦게 하셨다. 충분히 불행할 상황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말씀으로 질문했고, 하나님은 '복 주려고 하신다' 말씀을 잠게 하셨다. 여러분은 문제가 있어도 남은 자다. 언약의 여정으로 지금 문제를 주신 것이다.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구는 둥글고, 지구의 중심은 여기라고 우기면 된다. 그걸 자부심, 자공심, 자존심이라고 한다.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 고아들이 부모를 원할 때 저는 꼭 성공해서 부모님을 도우라고 말했다. 부모를 원만만 한다면 망하는 인생이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행복하다. 끌려 다니면 행복이 없다. 세상을 끌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에스라는 그 생각을 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비판한 게 아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잘못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야겠다는 언약을 붙잡은 것이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 바벨론 포로 끌려간 후 다시 세 번 돌아온 역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BC.605년, 597년,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정신 안 차리고 복음적으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면 원방의 재물이 풀려올 것이다.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할 때 한국이 성장했다. 교회의 역할이 크다. 교회가 성장할 때 나라와 민족도 강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따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BC.586년으로부터 70년이 지난 BC.516년에 성전은 다시 재건되었다. 포로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은 1차 귀환부터 3차 귀환까지의 내용과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운동 사역의 의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약 5만 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전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과 1차 귀환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건축이 중단되고 말았다. 페르시아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건축할 수 없다고 하자 방해했다. BC.536년부터 BC.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 재건을 독려하여 드디어 BC.516년에 솔로몬 성전에 이은 2번째 성전이 완공되었다.

(2)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2차 귀환한다. 1차와 2차 귀환 사이 즉, 페르시아 아하수세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계획이 수산궁에서 하만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이때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인물이 바로 왕비 "에스더"다. 에스더와 모르드개 사건이다.

(3) 에스더 사건 이후 약 27년 후인 BC.458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는 어떻게 바벨론 포로였던 에스라가 구약성경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역할이었을 것이다. 모르드개는 문지자였으나 그 이후로 총리의 역할을 했다. 모르드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숨 걸고 정리하던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학자가 나왔을 것이다. 여럿과 같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에스라와 같은 램넛트가 나올 수 있다. 램넛트들도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에 대하여 알려준 것이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에스라 선지자의 말씀개혁신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4) 다음으로 3차 포로귀환은 BC.445년 느헤미아가 주축이 되어 귀환 후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사건이다. 느헤미아가 와서 성전도 재건되었고 말씀도 회복되었다. 성전을 짓고 금은 성물도 회복시켰으나 당시에는 성곽이 없었다. 그래서 느헤미아가 성벽을 건축하며 땅대를 지었다. 중직자와 램넛트가 곳곳에 땅대를 짓지 않으면 말씀과 교회도 다 무너진다. 현장에서 땅대를 지어야 한다. 땅대의 역할을 잘할 때 복음과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 돌아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쩌면 완전히 사라져 버릴 뻔했던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었던 것이다. 이 남은 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과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남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들이 바로 그루터기요 램넛트이다. 그러나 이 남은 자들도 아직 변화시켜야 할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었고 세계를 바꿀 민족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다 믿는데 아직 우리 안에 꺾어야 할 흑암과 사탄의 통로가 많다.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다. 날마다 말씀이다. 생각만 해도 날마다 거듭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제2차 포로귀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쫓아냄으로써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개혁을 주도한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이다. 외국 사람과 국제 결혼한 게 잘못이 아니다. 믿음이 없고 영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상태는 이방 여인의 우상들을 다 섬겨 버리는 영적상태였다. 에스라서를 기록한 목적도 남은 자들이 끝까지 세상에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완전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후대와 그 후대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2. 에스라 선지자와 그의 말씀운동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째로 우선 에스라는 불신자 왕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즉, 에스라는 Nobody, Nothing의 현장을 말씀의 실력으로 Everything현장으로 만든 남은 자 램넛트였다.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으로 인정한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왕들과 대통령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다. 그들의 신앙이 오히려 순수하다. 이러한 인물이 대통령과 왕 옆에 있어야 한다. 저는 오히려 무슬림이나 왕정 국가, 전체 국가가 오히려 복음화되기 쉽다고 생각한다. 최고 지도자만 바뀌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 램넛트사역의 절대목표와 절대망대가 되어야 하겠다.

(2) 에스라는 말씀만 정확히 정리하였는데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받았다. 에스라서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다.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체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에스라에게 다 가져가라는 말이다. 복음만 정확히 전달하면 얼마든지 물질을 전할 갑부와 왕과 대통령이 전 세계에 많다.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세계 말씀을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스리랑카와 니팔도 해야 한다. 복음가진 강사가 없다. 신학자는 많은데 제대로 성경과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 중직자와 성도들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잘 정리하면 중직자가 갈 수도 있다. 그런 시간표가 올 줄 믿는다. 날마다 준비하시기 바란다. 준비하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온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자격증과 공부를 준비하고 낮은 것부터 준비해라. 그러면 길이 많이 열린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80세부터 쓰셨다.

(3) 세 번째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번제 즉, 피제사를 드렸다. 번제는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이다. 에스라 8장 35절 말씀을 보겠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또 숫양이 아흔여섯 마리요 어린 양이 일흔일곱 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열두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 모든 제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에스라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이다.

(4) 네 번째로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방 결혼을 한 것을 보고 '기가 막혀'하였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은 어떤 일에 '기가 막혀'하는가. 어떤 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가. 한국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일에 안타까워하고 한으로 생각하나.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에스라와 같은 중심을 원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심을 원하신다.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나라가 복음 밖으로 가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중심을 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아주실 것이다.

(5) 이때 에스라를 돕는 중직자들이 일어났다. 안타깝게 여기니 중직자가 일어났다. 에스라 10장 4절에 보면 '스가랴라는 중직자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라고 말한다. 바른 중심을 가지면 여러분을 도울 자가 일어난다. 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받는 걸 떠나서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란다. 누구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도울 생각을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6) 결국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말씀사역에 도전하였다. 에스라와 같이 말씀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의 망대로 쓰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다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④ 안다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⑥ (마게도나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학사 에스라 선지자처럼 이 시대에 말씀과 복음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전 세계 237의 현장에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 절대미션을 알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언약을 굳게 잡고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